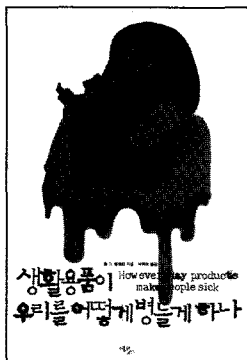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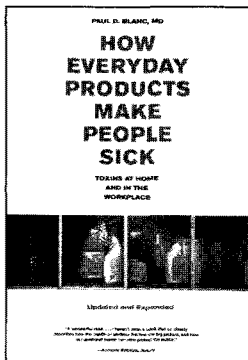


# 생활용품이 우리를 어떻게 병들게 하나

(How everyday products make people sick: Toxins at home and in the workplace)

출판 에코리브르, 2010

저자 폴 D.블랭크



책 내용은 원제목 그대로 가정생활이나 사업장에서 쓰는 물질들이 어떻게 건강을 해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한글 제목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환경문제를 주로 다루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나, 읽어보면 산업보건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산업중독에 대한 것이 주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저자는 산업원료, 독성이 있는 가정용 소비재, 또는 의약품에서 야기될 수 있는 건강 영향에 대한 교훈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책을 읽고 나서 처음 느낀 것은 나름대로는 산업중독학에 대하여 꽤 알고 있다고 자부해 왔는데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다

이 책은 미국 산업의학전문의를이면서 UCSF(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산업의학과 교수인 폴 D.블랭크가 미국에서 문제가 되었거나 직접 경험한 여러 가지 중독성 질환, 직업병 및 환경질환을 소개한 책이다.

는 것이다.

이 책은 많은 주제를 다루면서도, 한 가지 주제에 관해, 질병에 대한 의학적 검토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중독학적인 설명을 덧붙여, 중독학 교과서로 사용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또한 그러한 질환과 관련된 의학 서적이나 문학작품에 대한 심도 있는 역사적인 고찰을 통해 현재의 많은 직업성 질환들이 과거에도 다른 환경에서 다른 이름으로 존재하였다는 것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환의 사회적 함의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지구 전체에서 직업성 질환이 동시대적으로 어떻게 발생하였고, 어떻게 변화하여 가는지도 고찰하였다.

예를 들어, 이황화탄소 중독의 원인과 임상에서 미국 및 유럽에서의 중독사례를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황화탄소 중독이 세계적으로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역사적으로 상세히 기술하였고, 일본의 이황화탄소 중독 문제가 한국을 거쳐 중국에 갔다는 것도 그 당시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더불어 자세히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 필자가 본 글 중에서는 그 배경을 가장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관심분야인 망간 중독에 대하여도, 그 임상적 특성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 변천에 대하여도 자세히 기술하였다. 일제 시대에 일본에 징용되어갔던 한국인 노동

자들이 망간 광산에서 강제 노동을 하면서 진폐와 망간 중독에 걸렸다는 사실은 필자도 알지 못하였던 부분이라 읽으면서 상당히 놀랐다.

폴 D.블랭크 교수는 산업중독학 중에서도 직업성 폐질환을 전공으로 하는 분이다. 그래서 인지 inhalation fever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임상증상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History of toxicology의 원형이라고 할 정도의 내용이다.

폴 D.블랭크 교수는 산업보건의 역사적 측면에도 조예가 깊어 올해 6월에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HISTOR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EALTH를 조직하였다.

필자가 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Health에 <Transfer Occupational Health Problems From a Developed to a Developing Country: Lessons From the Japan-South Korea Experience>라는 논문을 게재한 적이 있는데, 그 논문을 계기로 서로 알게 되었다. 또한 그것이 계기가 되어 필자가 UCSF의 toxicological grand rounds에서 망간 중독에 관한 강의를 하였는데, 그 때 폴 D.블랭크 교수는 toxicological grand rounds에 참석한 산업의학 전공의에게 망간 중독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 주었다. 그 때 저자의 망간 중독에 관한 해박한 지식에 대하여 놀랐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비로소 그 까닭을 알 수 있었다.

이 책은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것들을 꿰뚫고 있는 것은 직업병 문제의 본질과 예방에 대한 관심으로, 산업의학의 원점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할 뿐 아니라 철학적 측면도 함께 담고 있는 책이다.

사족을 붙이자면, 산업의학전문으로서 이

렇게 화학, 문학 및 역사에 대한 조예가 있는 것이 놀라웠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역자가 산업보건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용어에서 오역이 간간히 눈에 띄는 것이다.

한국에서 산업보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일독하길 권한다. 단순한 일독이 아니라, 옆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펼쳐볼 정도의 수준 높은 산업보건 교과서 또는 중독학 교과서라고 생각된다. ☞

제공 | 울산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김 양 호